

#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 (I)

金 鴻 植 (會員 · 금성종합설계공사)

## (목 차)

- |                |                  |                |
|----------------|------------------|----------------|
| (1) 개 른        | ㄱ. 퇴 사랑방집 - 중부내륙 | ④ 정주간이 있는 집    |
| (2) 전(田)자집     | ㄴ. 정지방집 - 남부내륙   |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
| (3) 6칸집        | ㄷ. 근세형집          | ① 정주간이 없는 집    |
| ① 영동형          | (4) 8칸집          | ② 정주간이 있는 집    |
| ㄱ. 마루집 ㄴ. 구들집  | ① 칸수만 증가된 집      | ③ 근세형집         |
| ② 안동형          | ② 한쪽 부엌집         | (6) ㄱ자 모양집     |
| ㄱ.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 ③ 가운데 부엌집        | (7) 사방집        |
| ㄴ. 마구간이 없는 마루집 | ㄱ. 외양간이 있는 집     | (8) 결 른        |
| ㄷ. 마루가 없는 집    | ㄴ. 외양간이 없는 집     |                |
| ③ 중간형          | ㄷ. 살림방을 놓은 집     |                |

## (1) 개 른

양통집이란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2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북부(함경도) 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동해안 지방, 안동지역, 드물게는 서부경남 및 경기도 서해안까지 분포되어 있는 집이다. 또한 안(몸)채 안에 외양간, 방앗간, 고방 등의 경리(經理) 시설물이 부엌 옆에 시설되고, 함경도 지방의 양통집에는 정주간이 마련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양통집의 유형은 정주간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사방집(세겹집)을 포함시키는 수도 있는데 크게는 사방집이 양통집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은 주로 함경남도 와 강원도, 황해도 의 광주산맥 주변, 경기도 일대 및 이남에서는 안동과 영동지방 즉, 태백산맥 동쪽지역 및 태백·소백산맥 중심의 산간 지대에도 가끔 분포한다. 반면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함경남북도에 분포하며 사방집은 광주산맥 및 태백산맥 줄기의 내륙산간 지대에 퍼져 있다.

양통집에 있는 (붕당)마루는 그 형태가 곱은자집의 대청마루와 같고, 특히 사방집의 대청마루와는 더욱 유사하다. 즉 대청, 공청, 붕당마루 등의 각종 마루는 방의 배열에 따른 형태가 좀 다를 뿐이고 그 기능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들의 연원이 같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마루가 기후관계로 인해 발전한 남방형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실제로 마루는 상당히 추운 지방에서까지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루가 반드시 남방형의 집에만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양통집 가운데서도 외양간이 몸채 안에 있지 않고 부엌 앞의 처마 밑에 시설되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의 모양이 마치 외통집의 ㄱ자집과 비슷하게 된다. 외양간을 따로 배어 냈을 경우 양통집에는 그 자리에 (판방)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방은 외통형 ㄱ자집에서의 판방(건넌방)과 비슷한 구실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양통형 집에 있어서는 문의배치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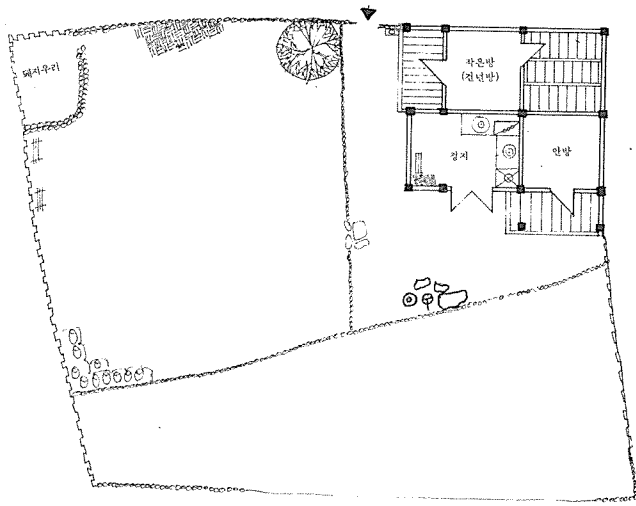
곶은자집은 곶은자 모양의 양통집에서부터 그 평면 형태가 출발하였으리라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 그 칸수가 최소한도로 작아지는 경우 보통 외채 외통형집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집은 중부 산간지대에 널리 분포한다.

양통집은 다른 지방의 소농들의 집에 비해서 비교적 크므로 땅이 척박한 곳에서 자영농들이 이용하는 집이었음을 말해 준다. 양통집을 이남에서는 겹집이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삼남 지방의 전후좌우 퇴집의 겹집과 구분하기 위해서 함경도에서 쓰이는 양통집이라는 말을 쓴다. 왜냐하면 삼남지방의 겹집은 여기 양통집의 평면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제갈, 민속대관 주생활편 참조, 고대민속문화 연구소 1981.) 따라서 주택이란 사회경제적 및 신분적인 제약, 생산력 및 자연지리적인 조건에 적응하면서 형성·발전했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양통집은 주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이 절감되도록 설계된 집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대지향적인 집이라고 믿는다.

## (2) 전(田)자집

이 집은 평면의 간살이가 발전(田)자 모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구조방식은 겹집의 유형과 관계를 맺으며 다분히 2칸 막살이(결)집과 공간구성, 이용, 분포 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분포지역은 남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가끔 볼 수 있으며 내륙이나 제주도 등지에도 극히 드물게 분포한다.

평면의 모양은(그림 1 : 전남 승주군 낙안면 동내리 최 선준. 79. 7 월 조사) 거의 바른네모꼴로서 사방집, 파리집, 뜰집과 함께 우리나라 집에 있어서의 특이한 형태이다. 간살이는 앞쪽으로 대청과 건넌방(남부지역에서는 아랫방이라 부름)을 배열하고 뒷쪽으로 마루 뒤에 안방과 그 옆에 부엌을 놓는다. 다시 말해서 구들과 부엌 및 대청이 각각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부엌에서 각 구들에 직접 불을 댈 수가 있으며 또한 각 방에서도 마루로 직접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마루로 직접 나가지 못하고 집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



(그림 1 : 전(田)자집)

한 점이 있다.

이런 집들은 보통 퇴 없이 이용되거나 최근에는 처마 밑을 이용하는 민가의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부엌과 안방 뒤의 처마 밑을 막아서 수장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부엌+안방 앞쪽과 부엌+전년방 앞쪽에 퇴를 덧달기도 한다. 이런 것은 그 지방의 구조기법으로서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취사선택하는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집으로 양통집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벽체는 뼈대를 주축으로해서 흙담을 평벽처리하는 고식(古式)인 경우가 많으며 맞춤 또한 상투맞춤으로 고전적인 방법이 이용되는 수가 많다.

집의 구성은 보통 외채로 처리되지만 남부지방의 특성처럼 쌍채인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발전(田)자집이 안채보다는 사랑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하는 계층은 소농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또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건물면적에 비해 경제적이다. 그러나 집의 전체규모가 작고 부엌에서 대청으로의 출입이 나쁘며 장차 증축 가능성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집의 공간이용이 가계 등으로 쓴다든가 하는 특이한 경우가 많으며 임시 가건물로 지었다가 그냥 눌러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집은 동북지방의 양통집이나 삼남지방의 겹집이 분포하는 곳에서 집의 규모가 6칸보다 작아질 때 쓰이는 평면구성이다.

### (3) 6칸집

6칸 양통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으로서 평면의 모양, 구조 및 가구(架構)의 기법이 양통집의 표준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집에서는 소작겸 자작, 혹은 자작을 할 수 있는 소농(小農)이 산다. 분포상황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중부내륙의 산간지대와 태백산맥의 동쪽인 관동·영동지방 및 안동에 걸쳐 분포한다. 그리고 서해나 남해 해안지역에서도 아주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집이 분포하는 지역의 공통된 특색은 국가의 치안능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는 변방지역이고 땅이 비교적 척박한 지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치안의 편의상 집이 외부에 대해 폐쇄적으로 지어졌고 평면의 구성은 부리는 사람이 없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부(主婦)의 동선(動線)이 짧게 고려되었다. 여기에 비해서 부지역에서 유행되었던 품은자집은 처음부터 부리는 사람들

들 생각으로 지어진 평면으로 생각된다.

### ① 영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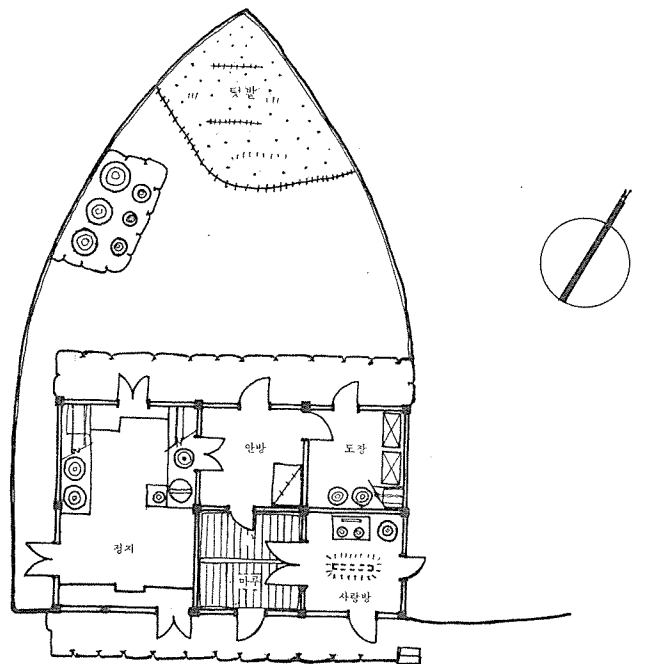
이 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이기는 하나 3칸 일자집처럼 부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하 2칸을 차지하고, 나머지 간살이는 발전(田)자 모양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기능에 맞도록 꾸며진 집을 말한다. 분포지역은 태백산맥 동쪽의 원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영동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서 영동형이라 부른다.

### ㄱ. 마루집

이 집은 가운데에 마루가 시설된 집을 말한다. 그 분포지역은 원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이며 주로 오래된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평면의 형태는 긴네모꼴이며 긴 변(邊)을 전면으로 한다.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 양통이고 지붕은 초가 이영에 합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초가지붕을 합각으로 처리하는 수법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널리 분포하여 특히 이쪽 영동지방에서는 모두 이러한 방식이다. 이것은 모임지붕의 구조보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빗물처리가 쉽지 않지만 모임지붕의 구조상의 결함을 해결하고(제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주생활의 구조편 참조, 문화재 판리국 1977) 부엌의 연기가 빠질 수 있는 환기구멍을 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집을 까치구멍집이라 부른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2(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34 방재전, 80.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前面)을 셋으로 나누고 측면을 둘로 나누어서, 왼쪽은 상하 두 칸을 부엌으로 쓰고 가운데는 앞쪽에(봉당)마루와 뒤쪽에 안방을 놓으며 오른쪽은 앞으로 사랑방과 뒤로 도장을 배치한다. 이 집이 다음에 설명하는 6칸 구들집과 다른 점은 마루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는 전자의 마루 위치에 구들(안방)이 놓이는 점이다. 또한 전자의 평면은 안동형과 상당히 유사하며 뒤의 6칸 구들집보다 이전에 발생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씨 집의 경우에는 외양간이 없는데 이는 이 집이 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마당이 없다는 데서도 반영된다.



(그림 2 : 영동형 마루집)

부엌은 상하 두 칸을 통간으로 쓰고 있다. 부엌설비는 뒤 한 칸에만 설치되고 앞 한 칸은 실내작업을 위한 봉당공간으로 쓰인다. 봉당은 함경남북도에서부터 안동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된 집들에서 볼 수 있는 가내작업 공간이다. 부엌 바닥은 (뜨릭)(토방 또는 뜰팡)보다 낮아서 부엌 안에 부뚜막 같은 단을 만들며 서쪽 문에는 디딤돌을 놓았다.

마루는 부엌 쪽이 개방되었고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안방과 사랑방 및 도장은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이다. 도장은 온돌이 시설되어 보통 때는 물건의 수장공간으로 이용되지만 식구가 많으면 신혼부부 또는 딸의 방으로 이용된다. 마치 3칸 집의 옷방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이런 류의 집 가운데 농가인 경우는 마구간을 몸체에 덧다는데 부엌(정지) 앞으로 처마를 내달아서 만든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붕모양은 부엌지붕과 비슷하여 처마를 계속 이어 내리며 따로 지붕마루는 없다. 마구간 외벽은 이곳에서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려되었고, 옆쪽(側壁) 처마 밑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장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방들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류가 상하 6칸집인데도 불구하고 8칸으로 만들어서 안방을 좌우 2칸으로 하고 마루와 사랑방을 좌우 칸반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집에도 마구간이 부엌 앞에 시설되는 경우가 많다.

#### ㄴ. 구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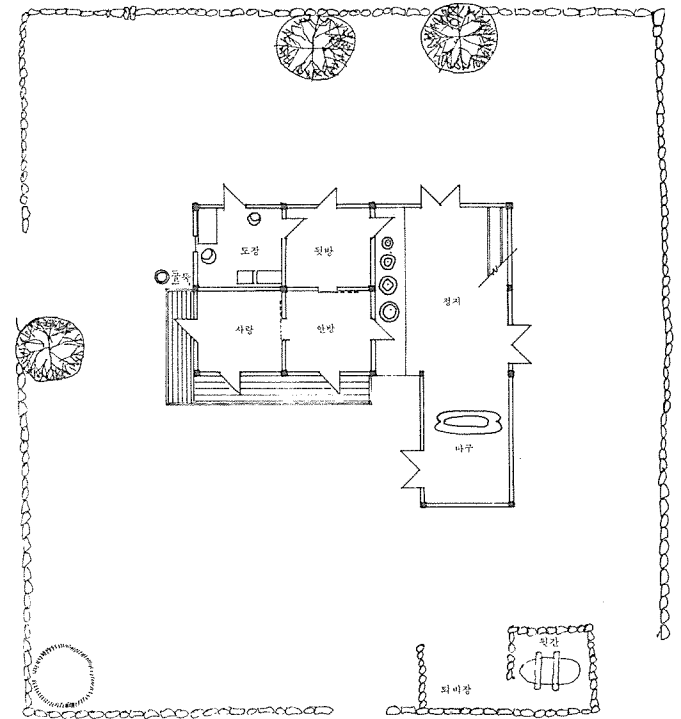
이 집은 앞의 마루집의 마루에 구들을 설치한 집을 말한다. 동해안의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여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三平柱三樑)이고 평면 형태는 특수하게 7자 모양이며 7자 모양의 안을 마당쪽(前面)으로 하고 있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3에서(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 최태집씨 73. 7월 조사) 보는 바와 같이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오른쪽 간살은 상하 두 칸을 부엌으로 쓰고 그 가운데는 앞으로 안방과 뒤쪽에 뒷방을 놓는다. 그 옆은 앞쪽에 사랑과 뒷쪽에 도장을 배치한다. 또한 부엌 앞에는 한칸 크기의 마구(외양간)가 집과 7자 모양을 이루도록 만들어지고, 안방 앞 및 사랑 앞과 옆에는 조그만 쪽마루가 설치된다. 동해안 지방의 농가 평면은 대개 이와 같으며 도리간은 보통 한 칸이 8~9자(尺)이고 보 방향은 보통 8자(尺)인데 외통집인 경우에는 보간을 10자로 한다. 부엌은 상하 두 칸이며 다른 지방의 부엌과 마찬가지로 퇴칸을 덧달아서 공간을 크게 이용하고 있다. 부엌문은 마구간 쪽 세로벽에 내어 뜨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구간은 보통은 서까래를 계속 이어내려서 그 처마 아래를 이용하나 이 집은 정식으로 도리를 걸어서 맞걸이 3량구조의 집을 7자로 덧달아 내었다. 그러므로 이런 집은 정식 곱은자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외양간은 오래된 집의 경우 처마밑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종도리를 거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대신 외양간 지붕은 모임으로 처리하지 않고 박공으로 만들어서 빗물을 양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본체의 용마루에 맞추지 않고 본체의 처마도리에 걸쳐 맴으로써 지붕을 한 단 낮게 하여 곱은자집에 있는 회침골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했다. 자연히 마구간은 천정높이가 낮아지는데 이 점은 뜨릭을 본체는 높게하고 마구간 부분은 낮게 처리함으로써 해결한다.

안방은 구들이라고 통상 부르며 뒷방은 남부지방의 정지방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어 딸의 방이 된다. 구들 및 사랑의 앞과 사랑의 옆에는 쪽마루가 시설되는데 쪽마루는 동해안지역보다는 내륙지방에서만 가끔 볼 수 있으며 이것도 최근의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해안지방의 경우 비바람 때문

에 빗물이 문앞까지 들이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젖어도 괜찮은 회마루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루를 설치하지 않는게 보통이다.

이런 류의 집에는 논농사가 없는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헛간채는 없다. 다만 변소간이 마당 건너에 만들어진다. 담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강원도에는 산간이라 돌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돌로 쌓았고 대문은 문 없이 시설된다. 마당에는 퇴비장과 짚가리가 만들어지고 나무두어그루가 집안 앞뒤에 있다.

기타 구조상의 큰 특색은 초가지붕이면서도 지붕이 합각으로 되는 점이며 평면의 이용은 강릉지역에 보편적인 1세대 주택이다. 요즘에는 뒷방과 도장의 너비가 작아짐으로써 중부지방의 골방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충청도에서 골방이 겹집 양통화 되어가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어 흥미롭다.



(그림 3 : 영동형 구들집)

#### ② 안동형

안동형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안동을 주변으로 하는 안동 문화권에 속하는 지방에 분포하며 오래된 집들에 많고 그 남아 있는 숫자는 많지 않다. 이런 집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부분 자영농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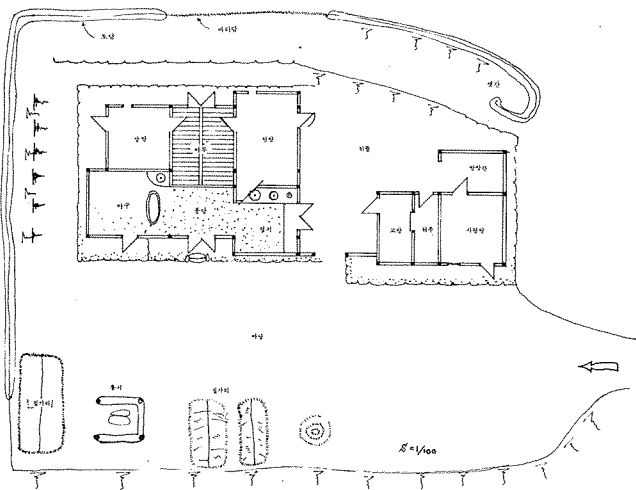
이 집은 역시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집이기는 하나, 영동형과는 평면구성이 다르다. 중앙의 상하 2칸에는 앞으로 봉당과 뒤로 마루가 놓이며, 양측의 옆방이 상하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기능에 맞는 살림방으로 된다. 영동형과 이 집이 다른 점은 앞의 경우, 살림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뒤의 경우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은 부엌(정지)이 상하 2칸인 반면 이쪽은 한쪽 모퉁이의 한 칸을 쓰고 있다. 또한 집안에 외양간을 설치할 경우 앞의 경우 부엌쪽에 붙여 7자로 덧달아 내고 있지만 여기서는 건물내부에 한 칸을 차지하여 시설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안동형이 오히려 영동형보다 고식(古式)이라 믿어지는데 이런 근거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이런 형의 집이 함경도에 분포하는 집들이나 태백산맥의 산간지대에서 볼 수 있는 사랑집(세마루 집)과 유사

한 백락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7. 마구간 있는 마루집**

이 집은 6칸 양통집으로서 중앙 뒤쪽에 마루가 배치되고 집안에 마구간이 시설되는 특징을 가졌다. 평면은 긴 네모꼴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과 마찬가지로 긴 변을 정면으로 삼는다. 간살이는 그림 4 (경북 안동군 예안면 서양동 양정 김 종철씨 1973. 11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앞으로 부엌, 뒤로 안방을 놓고 가운데는 앞쪽에 봉당, 뒤에 마루가 배치된다. 왼쪽에는 앞간에 아래를 외양간(마구간)으로 하고 위는 다락을 만들며 뒤칸은 상방을 배치하고 있다.

안방은 크게 쓰기 위해 뒤의 처마 밑과 부엌쪽으로 내밀은 반면 부엌은 앞벽의 처마 밑을 이용하여 내썩고 있다. 이렇게 내 밀은 공간은 수장공간(收藏空間)으로 이용하고 부뚜막 위에 벽장을 두었다. 봉당의 벽은 앞쪽에만 설치될 뿐 부엌과 마루쪽은 개방되어 있으며 마구간쪽은 구유로써 경계를 삼고 있다.



〈그림 4 : 안동형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마루는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며 2자(尺) 정도 봉당 쪽으로 더 내달고 있다. 마구간은 봉당 쪽의 구유를 안으로 들여놓고 대신 옆벽 처마 밑을 내썩었는데 마구간 부분만 내 밀었기 때문에 그 위는 눈썹지붕을 해 덮었다. 다락은 마구간 위에 지름 10cm 정도의 둥근 통나무를 가로 질러서 만들었다. 상방은 그 기능이 일차(외통)집의 사랑방과 웃방의 두 기능이 복합된 집이다.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안채 오른쪽에 두 칸의 사랑채가 안채(원채)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구조는 맞걸이 3량이며 오른쪽 간살에는 사랑방이 놓이고 왼쪽 간살은 고방, 뒤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랑방 뒤에는 처마를 내달아서 7자로 비가 들치지 않도록 벽을 만들고 디달방아를 설치하여 방앗간으로 쓰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와의 사이는 건물의 벽과 같은 담장으로 연결하고 대문을 시설하여 뒤뜰을 앞마당과 구분하고 있다.

울담은 뒷쪽에만 시설하고 앞쪽에는 만들지 않았으며 대문 또한 가설하지 않았다. 잣간은 뒤안에 담을 둘러쳐 이용한다. 뒷간(통시)은 마당 앞에 설치했는데 이것 역시 ㄷ자로 벽을 쌓고 지붕을 덮은채 시선만 차단하여 쓰고 있다. 마당에는 짚가리가 여러 못 쌓여 있고 벼(나락)를 보관하는 〈장석〉도 시설된다. 이런 집은 안동지방에만 특수하게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해안지방과 강원도의 태백산맥 줄기 근처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집을 간간히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사랑채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채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경우 이것이 두이(二)자나 7자 모양을 이루도록 배치되는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나란히 배치될 뿐 아니라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경우, 뒤안(뒤뜰)을 안으로 하는 7자 모양의 사랑채가 안채와 나란히 놓여진다는 점이다. 이 배치를 보면 뒤뜰의 공간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내부공간으로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영동지방, 안동지역 그리고 제주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방식이다. 대신 이곳의 앞마당은 외부로부터 개방되었는데 이것은 영동문화권의 일반적인 현상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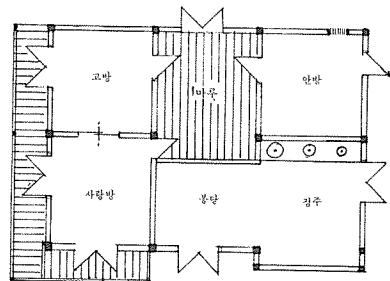
최근에 지어지는 집은 안채가 7자로 되고 행랑채(모채)가 일(一)자 모양으로 사랑방 옆에 배치되는데 앞마당을 중심으로 놓여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우 가족생활은 뒤안에서, 생산활동은 마당에서 한다는 생각이 깨지고 생산활동은 집 바깥에서 하고 가족생활은 집안에서 한다는 서쪽 지방의 공간개념이 섞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채의 가장 일반적인 평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7자 집인 경우 안채 가까이에 마구간을 두고 다음에 대문간, 모퉁이에 사랑방을 상하로 두며 이곳에서 집이 안으로 꺾어져서 고방, 뒤주, 방앗간의 순으로 배열된다. 물론 마구간과 안방과의 사이는 담장으로 막아서 뒤안공간에 타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대신 뒤주와 고방, 방앗간은 안채의 부엌과 긴 밀한 관계를 갖도록 고려되었고 사랑방만 바깥 쪽으로 문들이나 있어서 앞마당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행랑채가 한일자집인 경우는 안채와 7자모양으로 배치되고 앞에서부터 마구간, 〈쇠물정지〉, 행랑방, 뒤주, 방앗간의 순으로 배열된다. 물론 안채의 부엌과 행랑방 사이에 담장이 막아지며 여기에 대문이 시설되어서 뒤안으로의 출입은 제한된다.

**8. 마구간 없는 마루집**

농가생활에 있어서는 외양간(마구간)이 집안에 부엌과 가까이 있으면 대단히 편리하다. 그러나 위생상의 이유와 악취 등으로 근래에는 외양간을 딴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앞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에서 외양간이 없어지고 대신 살림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마구간 없는 마루집이라 한다. (그림 5: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 73.11월 조사.) 외양간이 집안에 있는 경우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동부지역과 제주도인데 이런 지역에서 마구간이 딴 건물로 옮겨가는 현상은 남쪽의 경우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림 5 : 안동형 마구간 없는 마루집〉

산간지대인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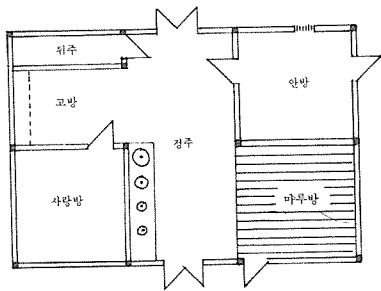
평면의 구성을 보면 앞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에서 외양간의 위치에 사랑방(상방)이 오고 상방의 위에는 고방을 시

설한다. 일반적으로 고방에는 마루가 깔리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서는 온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양간의 위치에 살림방이 증가되는 것만 다를 뿐 다른 방의 구성은 앞의 것과 똑같다. 사랑방 및 고방의 앞과 옆 벽에는 쪽마루가 놓이는데 이것 또한 최근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오래 된 집에서는 시설되지 않는게 보통이다.

### ㄷ. 마루가 없는 집

이 집은 마루가 없이 구성되어서 공간의 구성이 약간 변형된 집이다. 평면구성(그림 6: 경북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 73. 11월 조사) 가운데 앞쪽을 부엌으로, 뒷쪽을 봉당으로 이용하고, 오른쪽으로는 앞쪽에 마구간과 뒷쪽에 안방을 배치한다. 왼쪽은 앞쪽의 사랑방과 뒷쪽의 고방으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마루가 없는 대신에 이곳이 봉당이 되고 봉당의 위치에는 부엌이 시설되며 부엌의 위치에는 마구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집은 고방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뒷쪽의 뒤주와 앞쪽의 고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동지방의 어떤 평면 형태에서나 자주 혼용되는 기법으로서 이 집에만 적용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집은 객점을 한다든가 하는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는 수가 많으며 앞의 집들보다 좀 더 가난한 계층의 살림집에 이용된다. 이러한 평면 유형은 극히 보기 드물어서 최근에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림 6 : 안동형 마루가 없는 집)

### ③중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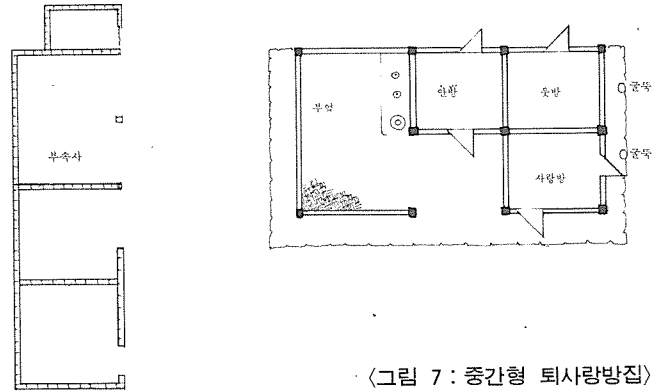
#### ㄱ. 퇴사랑방집- 중부내륙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전형적인 3칸 일자퇴집과 양통집이 결합하여 새로운 평면구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해안의 집보다는 앞마당으로 개방되어 있고 이 지방의 다른 집보다는 집안 중심적인 공간 구성을 보인다.

이런 류의 집은 충북, 경북의 산간지대에 자주 분포하며 보통 3칸퇴집에 사랑방을 두는 경우와 연관지어서 평면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방이 겹으로 배치되면서 온전한 칸 수를 이룬것만을 다루었으며 방이 겹이나 그 크기가 반(半)칸 정도의 것은 (한) 일자집에서 따로 다루어 정이다.

안채는 긴네모꼴이며 긴 변을 전면(마당쪽)으로 삼는다. 구조는 1고주5량 퇴집(一高柱五樑樑)으로 전형적인 양통집과 달라서 한일자퇴집과 같은 유형을 이룬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7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1구 이정안씨택 74. 7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부엌, 가운데는 앞쪽에 (뜨덕)과 뒤쪽에 안방을 놓고 오른쪽은 앞쪽에 사랑방과 뒤쪽에 옷방을 배치하고 있다.

부엌은 상하칸을 다 쓰고 바깥벽을 내쌓아서 공간을 크게 쓴다. 전면에는 문이 없이 뜨덕 쪽으로 개방되었고 뒤에는 문 없이 개구부가 있어서 이용된다. 뜨덕은 토방과 마찬가지로 앞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봉당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부엌



(그림 7 : 중간형 퇴사랑방집)

과 토방의 바닥은 흙바닥이다. 안방과 옷방은 크기가 같고 사랑방은 약간 적다.

이 집은 전면 퇴가 한 칸의 길이와 거의 같아서 양통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이나 보통 이 지방에서 앞 부분은 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방은 수장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한일자 외통집의 (머리)끝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옷방은 동해안의 도장과 중부지방의 옷방과의 중간의 기능을 갖는다.

이런 집에는 보통 헛간채가 딸리며 안채의 (왼쪽)모서리에 마당을 향해서 7자 모양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두이자(二)로 놓인다. 헛간채의 평면 간살이는 3칸으로 홑집이며 구조는 맞걸이 3량이다. 이런 모양은 중부내륙의 일반적 특징과 일치한다.

안채와 헛간채 앞에는 마당이 있고 변소는 헛간채 옆에 걸달아 놓이나 부엌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변소가 부엌쪽으로 가까이 가도 거리지 않는 현상은 중부지방에 많으며 근래에 발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울타리는 헛간채 반대쪽에만 생나무로 설치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인근 주택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옆집과 옆집들 사이는 모두 개방되어 있어서 경계가 일정치 않으며 어떻게 보면 도로에 면하는 셈인데 이것은 가난한 집의 일반적 특징이다. 장독대는 안채 뒤에 놓인다. 이런 집에는 극히 가난한 사람이 산다. 마당도 좁고 울타리도 시원치 않으며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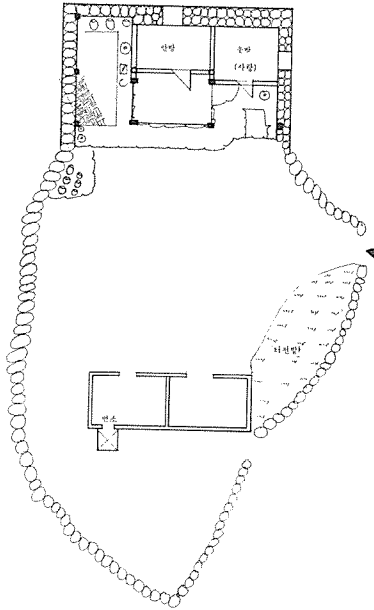
#### ㄴ. 정지방집- 남부내륙

양통집이 중부 이남으로 내려가면 겹집이라고 불리워지며 외통집의 측면 칸이 넓어져서 구성된 겹집과 평면이 비슷하여 겹집인지 양통집인지 애매한 상태의 것도 있다. 그러나 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 방이 두 줄로 배치된다는 점과 겹집은 앞뒤 퇴집이라는 점으로 구분해 볼 때 남부 내륙지방에 양통집들은 다음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인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78. 4월 조사)전면 3칸 측면 2칸으로서, 왼쪽에는 상하칸에 부엌을 놓고 가운데에는 뒷쪽에 안방을, 앞쪽에 마루(청)를 시설한다. 오른쪽에는 뒷쪽으로 옷방이 배치되고 앞에 작은 부엌이 만들어 진다. 부엌은 마루 쪽과 전면이 개방되어 있고 부뚜막과 토단을 사방 돌아가면서 시설한다. 뒷쪽에는 살갓(불박이 찬장)과 작은 항아리들이 놓인다. 마루에는 보통 판자가 깔리지만 흙(토단)을 약간 높게 해서 마루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옷방은 간혹 사랑방이라고도 불리우며 안방보다는 크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사랑방 앞의 작은 부엌에는 여불 솥이 놓여지고 부엌 바닥은 뜨덕보다 약 1.5자(尺) 가량 낮다. 마루는 전면과 양쪽 부엌 쪽이 다 개방되었다. 안방과 옷방에는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봉창만이 있을 뿐이다.

헛간채는 두칸집으로 안채의 맞은 편에 나란히 배치된다. 담장은 동쪽으로 안채와 헛간채를 연결해서 만들고 서쪽은 안채의 부엌 끝에서부터 헛간채를 돌아서 헛간 뒤에 뒷마당을 만들고 헛간채 동쪽 끝에 와 닿는다. 주 출입구는 앞마당 동쪽에 대문 없이 시설되고 뒷마당 동쪽에도 따로 작업을 위한 출입구가 만들어진다.

이 집에는 안채 뒤에 뒤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독대가 앞마당에 놓이며 앞마당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점과 헛간채가 곁들인다는 점은 중부 이북지방의 양통집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변소간은 헛간채에 붙여서 뒷마당에 만든다. 이곳은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남부 내륙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 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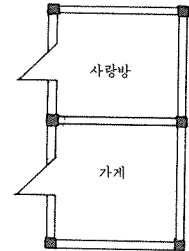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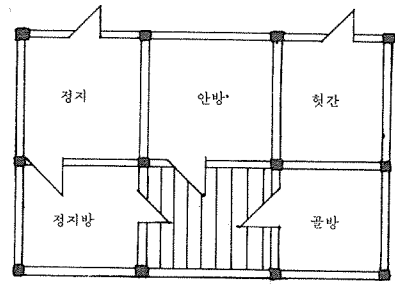


〈그림 8 : 중간형 정지방집〉

이런 집은 남부 내륙지방의 산간지대에 산재하며 역시 가난한 소작농의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에 살림방이 증가될 경우에는 영동지방의 경우 도장이 생기는 것과는 반대로 -부엌(정지)에 정지방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큰방에 나란히 배치되거나 또는 마루(청)와 나란히 놓여지거나 한다. 이럴 경우 마루에는 나무널이 깔리는 것이 보통이며 전면과 작은 부엌 쪽만 개방된다.

이것보다 더욱 살림방이 증가되었을 경우 영동지방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나 정지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앞으로 부엌방과 뒤로 부엌이 놓이고 가운데는 앞으로 마루와 뒤로 안방이 시설된다. 오른쪽으로는 뒷쪽에 헛간과 앞으로 골방이 만들어진다. 이 집의 경우 (그림 9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관룡사 아랫마을 78. 4월 조사)는 사랑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구성을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헛간은 골방이 되고 골방은 사랑방이 된다. 여기의 헛간은 광의 용도와 같고 골방은 도장의 기능과 같다. 〈청〉에는 주 출입구가 전면에 있어서 영동지방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안방과 정지방, 골방에 각각 출입문이 있어서 이 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헛간은 기능상 뒷쪽으로 따로 문이 나 있으며 부엌에는 부엌방과의 사이의 샅문과 뒷쪽에 주 출입문이 있다. 칸의 크기는 가운데 칸이 큰 점이 다른 지방과 특히 다르고 보 방향은 전면부분이 약간 작다.

이러한 안채 (몸채)에는 사랑채가 딸리기 마련이며 보통



〈그림 9 : 정지방집〉

은 3칸이지만 산간지대에서는 2칸집도 있다. 헛간채는 보통 맞걸이 3량집이며 칸의 크기도 약간 작은 경우가 많다.

앞에서 설명한 집들을 이 지방에서는 3칸퇴집이라고 부르는데 영동이나 안동지방에서 양통집이 퇴화하여 이와 비슷한 모양을 이룬 것을 (한일자(-)집 참조) 삼칸퇴집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하면 재미있다. 즉 양통집이 퇴화했으리라고 믿어지는 3칸퇴집과 홑집(외통집)이 발전했으리라고 믿어지는 3칸퇴집이 서로 그 연원이 다르면서도 평면의 구성은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원래 외통집은 양통집이 퇴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겠다.

이러한 평면들은 모두 오래된 집들에서만 볼 수 있고 산간지대에 산재한다. 이용하는 계층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며 살림방이 증가된 정도에 따라서 부의 축적에 정도차가 약간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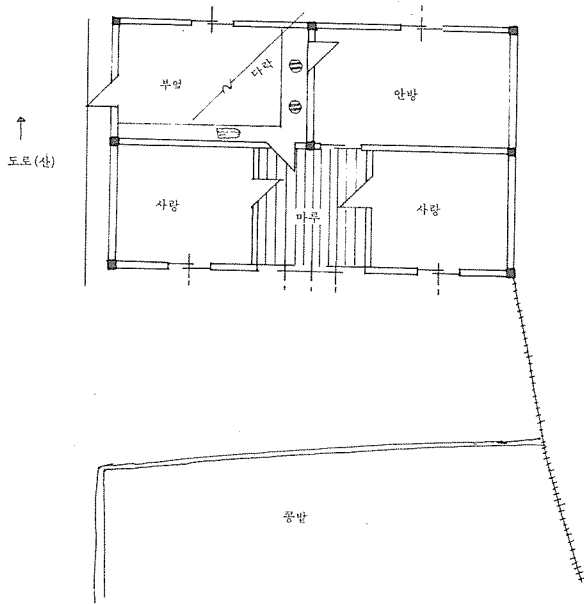
#### Ⅱ. 근세형집

최근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에 든 영동형집과 중간형집들이 모두 결합된 형태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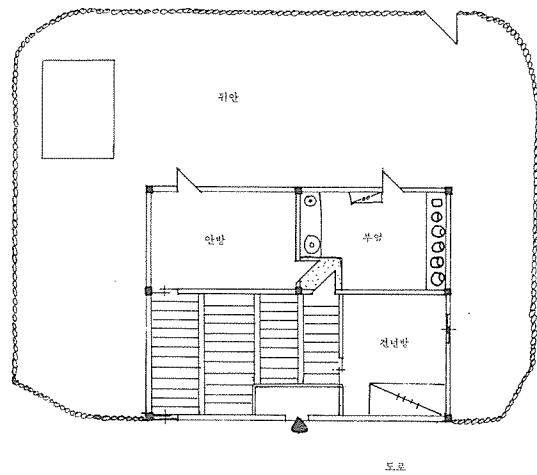
이 집의 한 예는 그림 10(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진리1구 신철용씨택 80.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긴네모꼴 집이다. 구조는 블록조로 되어 있고 모임지붕에 기와를 얹었으며 1977년에 옛 집을 헐고 신축했다고 한다.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 칸의 가운데에 마루를 두고 왼쪽에 사랑방, 오른쪽에 전년방을 배치한다. 뒷쪽 칸에는 왼쪽에 부엌이 놓이고 오른쪽에는 두 칸 크기의 안방이 배열된다. 최근에는 미서기문을 많이 이용하므로 마루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연결되고 안방, 전년방, 사랑방 등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 사랑방과 전년방에는 각각 전면으로 미서기문이 있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엌은 직접 마루로 문이 통할 수 있도록 사랑방보다 살이가 크게 설계되었고 주 출입구는 측벽에 나 있는데 모두 여닫이 문이다. 사랑방으로 부뚜막과 높이가 같은 토단을 돌려서 작업대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부엌 상부에는 다락이 시설되어서 안방에서 출입하도록 되었다.

측면 간살이의 크기는 앞뒤 모두 같고 전면의 경우 오허



〈그림 10 : 중간형 근세형집〉



〈그림 11 : 중간형 근세형집〉

러 가운데 칸인 마루의 간살이를 적게해서 살림방들을 크게 이용한다. 이것은 전과 구분되는 최근의 신축 경향이다. 집에는 딸리는 결채(헛간채나 사랑채)가 없이 안채만 쓰여지고 뒷마당도 없이 앞마당만 시설되었다. 결채가 없는 것은 어촌과 도시화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뒷마당이 없는 점은 영동지방의 공간이용과는 다르며 최근의 현상이다. 이런 집은 가난한 계층에서 약간 부(富)를 축적했을 때 이용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널리 분포한다.

최근에는 공간을 크게 이용함으로 해서 이런 집의 평면구성에서 안방 앞의 사랑방을 헐어 버리고 이 공간을 마루공간으로 크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집은 그림 11(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포1리 박인수씨택 77. 8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간살이로서 서해안에 있는 집이다. 이 점은 전국적으로 가난한 계층들이 최근에 지어지는 집에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도 드물다.

이 집의 마루는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연등천정이다. 외부와의 출입은 전면 가운데의 미닫이 문을 이용하고 마루 안쪽으로 신발을 벗는 토방 반 칸을 두는데 이것은 최근에 자

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건넌방은 마루로 출입할 수 있는 문만 있을 뿐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문은 없는게 또하나의 특징이다. 부뚜막 위에는 벽장이 시설되었고 토단은 부뚜막 반대쪽에만 만들어져서 항아리를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되었다.

구조는 3평주 5량집이어서 영동지방의 3평주 3량집과는 구분되고 지붕의 처리 역시 합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서쪽 지역의 특징이다. 전면은 직접 도로에 면해 있어서 앞마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앞의 트럭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촌에 있어서의 일반적 현상이며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대신 집의 뒷쪽에 담장을 둘러쳐서 조그만 뒷뜰을 만들고 여기에 장독대와 물통 등이 놓여진다. 변소는 뒷쪽에 난 출입문을 이용하여 뒷뜰 바깥에 만들어서 이용한다.

이런 집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결채가 딸리기 마련이나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수장공간이 없고 부엌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도시화되어 가는 근교 농촌에서도 볼 수 있다.〈\*〉

건설부 측량업 등록 제11호



대한 측량 설계 공사

1급건설기사 · 1급측량기사 · 지적기사

대표 김 충 일 서울 · 성동구 구의동 252-15 Tel. 446-6393

업무안내

- 측량**
1. 현황 측량
  2. 토목 측량
  3. 지형 측량 (고저 측량)
  4. 종횡단 측량
  5. 시공 측량
  6. 지적 측량 (상담)

- 측량 · 설계**
1. 토목설계, 시공감리
  2. 구조물설계
  3.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행위) 허가수속
  4. 일단의 택지조성사업허가 수속
  5. 연립주택 (아파트) 건설임지측량, 설계
- ※ 측량, 토목설계 상담환영